

2023. 4. 19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4월 19일 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

자치경찰협력과장

조재광

2133-9831

생활안전팀장

이용길

2133-9847

사진없음

사진있음

쪽수 : 3쪽

담당자

이지호

2133-9851

“시민의 안전을 위한 경찰·의료기관 합동 보호 시설”

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, 주치자·정신응급센터 현장 점검

- 4.18.(화) 경찰관의료진 합동 운영하는 주치자응급의료센터,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현장 점검
- 코로나19 가라앉기 해제, 따뜻한 날씨 영향 주치자 112신고 처리 3월 기준 전월 대비 27% 증가
-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최근 2주간 상담 및 입원 등 처리 건수 36% 증가
- 주치자·정신질환자 보호조치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연계 의료기관 확보 등 약속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(위원장 김학배)는 4.18.(화) 서울시 적십자 병원 내 주치자응급의료센터(종로구 평동)와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(마포구 성산동)를 방문하여 경찰관과 의료종사자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합동 근무 사항을 점검하였다.

주치자응급의료센터는 각 권역별로 4개소(국립의료원, 서울의료원, 보라매병원, 적십자병원)이며, 총 23명의 경찰관이 상주하며 각 병원 의료진과 함께 운영 중이다.

- 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응급구호가 필요한 주취자를 의료진에게 인계하고 센터 내 주취자의 소란, 난동, 폭행 등을 대응하고 있으며, 의료기관 상호 간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며 설립 취지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충실히 역할 수행하고 있다.
- 2023. 3. 112신고된 주취자 처리는 총3,572건으로 전월 대비 27% 증가했으며 하절기까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.

※ 전년도 주취자 112신고 7월까지 계속 증가

-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권성연 위원은 “경찰관이 보호조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자체와 업무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세분화하기 위하여 ‘주취자 보호법’ 법률 제정이 시급한 문제임은 틀림이 없다.”라고 하면서, “현재 경찰청에서 법률 제정을 추진 하고 있다.”라고 전했다.
- 서울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2022. 10.부터 경찰·지자체·의료기관이 합동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정신응급대응시스템을 구축한 센터이다. 시스템 구축으로 정신질환자 발견 시부터 입원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. 또한 의료기관의 입원 거부사례가 감소하였고 모든 절차에 의료 전문가가 참여함에 따라 인권 침해 우려도 줄어들었다.
- 현장 경찰관은 “정신질환자 관련 112신고 처리가 센터 운영으로 최소 1시간 이상 단축되어 다른 112신고처리 등 이외 업무가 가능해져 센터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.”라고 말했다.
-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정신응급대응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근무인원 확보, 시설물 확충 등 협업 연계 병행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
○ 최근 2주간 정신응급합동센터에서 업무 처리한 건수는 108건에서 147건으로 36% 증가하고 있으며, 업무 부담과 야간 근무 피로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무 인원 확보와 시설물 확충 등 근무 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정신질환자를 입원할 수 있는 정신응급환자 연계 의료기관을 늘리는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를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.

□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“주취자·정신응급센터업무 환경 개선과 연계 의료기관 확보 등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.” 라고 밝혔다.

참고자료 : 주취자응급의료센터 ·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방문 사진 1부. 끝.



▲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방문



▲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근무자 의견 청취



▲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방문



▲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근무자 의견 청취